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6
----------	-----

202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23.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10년 초과)됨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업무의 지속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나. 위탁 유형: 사무 위탁

다. 위탁 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및 사업효과 평가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치이며,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부·모의 비중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는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아동기 개입을 지원하는 보편방문서비스 및 고위험 가정 대상 지속방문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었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산전-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형 모델로 개발한 후 국내화에 성공한 사례로, 2013년 3개구(강북, 강동, 동작)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전체로 확대함.
- 이는 임신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사업지원단'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매뉴얼 개발 및 25개 자치구 방문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360시간(인력 1명당)의 교육을 통한 방문 역량 강화임.

- 사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과학적 근거 축적·확보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업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사업의 발판 마련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바.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사. 소요예산: 250,000천원('24년)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991,2023.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종합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5억원 미만)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21.7.30.~’23.12.31.)”의 총 위탁 기간 (최초공모 및 재계약 포함)이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1)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협약 연혁 〉

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2013.5.1. ~ 2015.4.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모
2차	2015.5.1. ~ 2018.4.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3차	2018.5.1. ~ 2021.4.30. (연장: 2021.5.1. ~ 2021.7.29.(90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4차	2021.7.30. ~ 2023.12.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58에 따르면,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 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해야함.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개요

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크게 1)전문인력인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실제 산모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³⁾하여 산·전후 우울증 검사, 모유수유 교육, 산모 및 영유아 건강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관리사업」과 2) 전문인력 교육, 자치구 기술지원,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을 수행하는 「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나누어짐
- 사업 예산 역시 크게 1) 실제 각 자치구에서 방문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간호사(75명) 및 간호직 간호사(20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약 51억원, 23년 예산 기준) 과 2) 「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약 1억8천만원, 23년 예산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는 후자인 「사업지원단」 사업이며, 동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1)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개발 및 관리 및 2)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그리고 3)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개요>

사무명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사업목적	○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3) 최초 임부 등록평가 시에 사회경제적상태, 우울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세부평가를 통해 방문관리는 1)보편방문(일반가정)과 2)지속방문(고위험가정)으로 분류됨. 1) 보편방문서비스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며 (필요시 추가1회) 산모 및 신생아 건강사정, 산전·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2) 지속방문서비스는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이 만 2세까지 총 25회 ~ 29회 방문하며, 기존의 보편방문서비스에 더하여 가족파트너십 기반 영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성장발달 지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공동방문, 지역자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사무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개발 및 관리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운영인력	○ 전문인력 10인 이내(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 민간위탁 운영 성과

- 본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⁴⁾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연간사업비 5억 이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구 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민간위탁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19년	350,000	350,000	0
'20년	350,000	350,000	0
'21년	200,000	200,000	0
'22년	200,000	200,000	0
'23년. 4월말	182,837	91,419	91,418

- 따라서, 본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검토는 ‘종합성과 평가’가 아닌 집행기관이 별도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운영 성과는 크게 1)2022년 「사업지원단」 자체 사업인 교육, 기술지원, 교육자료제작, 방문서비스질관리 등에 대한 실적과 2) 「사업지원단」 이 지원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연도별 실적과 만족도 평가로 나누어짐.

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2022년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활동의 실적은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총 121회 및 1,116명, (2) 자치구 기술지원 총 276회 및 369명, (3) 교육자료제작 7,064건, (4) 만족도조사 11,836건 및 22년 만족도 (보편방문 9.33, 지속방문 9.41),(10점만점 기준) 임.
- 다만, 교육대상 전문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인원’ 변동이 심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지원단」 실적〉

2022 기준	교육 및 교육자료 등								(4)방문 서비스질관리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2) 자치구 기술지원				(3)교육 자료제작	
	기초 교육	심화 교육	보건소 교육	임상실무 슈퍼비전	동행 방문	지속 대상자 방문	사업 성과 회의	리플릿 및 자람통	만족도조사
횟수	26회/ 168명	93회/ 913명	2회/ 86명	63회/ 63명	12회/ 12명	199회/ 200명	2회/ 169명	7,064	11,836건
총계	121회 / 1,167명			276회 / 369명				7,064건	11,836건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관리사업」의 연도별 실적과 만족도 조사는 아래 표와 같음. 연도별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20.1월) 이전 '19년까지는 사업 대상 자치구 수, 임부등록 인원, 보편방문도달율, 방문관리 인원 및 횟수, 엄마모임 인원 등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

〈연도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 실적〉

구분	자치구	출생아 (명)	임부 등록 (명)	보편방문도달율 (%)	방문관리 인원(명)			방문관리 횟수			엄마모임 (명)
					합계	보편	지속	합계	보편	지속	
' 17년	20개구	57,387	16,945	24.50	14,084	13,458	626	22,719	14,829	7,890	3,609
' 18년	22개구	48,685	21,111	31.10	15,161	14,425	736	24,749	15,630	9,119	3,349
' 19년	24개구	48,050	22,587	38.24	18,374	17,175	1,199	31,647	18,466	13,181	4,736
' 20년	25개구	53,000	8,819	13.10	6,951	6,380	571	14,478	6,906	7,572	84
' 21년	25개구	47,445	9,765	14.66	7,574	6,006	1,568	15,507	6,957	8,550	422
' 22년	25개구	45,531	10,903	18.67	9,155	6,879	2,276	18,999	8,499	10,500	1,545
' 23년. 4월말	25개구	45,531 ('22 기준)	4,886	9.69	5,745	3,783	1,962	9,229	4,411	4,818	832

-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면 방문’이 어려워지고 동 사업 전문 인력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 투입 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실적이 저조해졌으며, 특히 ‘영유아건강간호사’의 실제 방문실적 및 보편 방문 도달을 부진의 경우, 과거 서울시의회⁵⁾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22년을 기점으로 사업 실적이 반등하고 있고, 사업 만족도 결과가 꾸준히 평균 9점 이상(10점만점 기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종합적인 사업평가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 예산 및 일 평균⁶⁾방문건수〉

분류	인력수	실인원 (휴직자 등 제외)	22년 인건비 전체 예산 (천원)	22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보조금 (천원)	1인당 일평균 보편방문	1인당 일평균 지속방문	1인당 일평균 전체방문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	76명	69명	4,751,831	5,210	0.46건	0.61건	1.07건
공무원 영유아 간호사	25명	19명	495,000	1,650	0.13건	0.03건	0.17건
전체	101명	88명	5,246,831	4,329	0.39건	0.48건	0.87건

〈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보편방문 만족도	9.08	9.07	9.06	9.04	9.19	9.33
지속방문 만족도	9.42	9.34	9.39	9.41	9.42	9.41

5) 2022. 11. 28. (월)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중 운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질의 및 보도자료 “월급 500만원인데 방문 실적은 0.6건 운영희 시의원 ‘찾동’ 간호사 강력 비판”

6) 일 평균 방문건수 산출을 위한 ‘근무 일수 기준 : 2022년 ‘평일일수’인 247일 기준 적용

4 민간위탁 사무 필요성 검토

- 2022년 서울시의 심각한 출산율(0.59) 및 꾸준한 35세 이상의 부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의 사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지원단」 사무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인 “영유아 건강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7)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권고)

- [권고사항] 위탁 사무내용에 맞게 사무명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지원단 운영’으로 변경 검토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개요]

- 사 업 명: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 협약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방식: 공개 공모
- 지원사항: 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등)
- 예 산: 750,000천원 (250,000천원 / 1년)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21.7.30.~’23.12.31.)”의 총 위탁 기간 (최초공모 및 재계약 포함)이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크게 1) 전문인력인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실제 산모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⁸⁾하는 「방문관리사업」과 2) 「방문관리사업」의 인력교육과, 프로그램 및 자료 기획·제작 등을 담당하는 「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는 후자인 「사업지원단」 사업임.
- 2022년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활동의 실적은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총 121회 및 1,116명, (2) 자치구 기술지원 총 276회 및 369명, (3) 교육자료제작 7,064건, (4) 만족도조사 11,836건 및 22년 만족도 (보편방문 9.33, 지속방문 9.41),(10점만점 기준) 임.

2022 기준	교육 및 교육자료 등								(4)방문 서비스질 관리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2) 자치구 기술지원				(3)교육 자료제작	만족도 조사
	기초 교육	심화 교육	보건소 교육	임상 실무 슈퍼 비전	동행 방문	지속 대상자 방문	사업 성과 회의	리플릿 및 자람통	
횟수	26회/ 168명	93회/ 913명	2회/ 86명	63회/ 63명	12회/ 12명	199회/ 200명	2회/ 169명	7,064	11,836건
총계	121회 / 1,167명			276회 / 369명				7,064건	11,836건

8) 최초 임부 등록평가 시에 사회경제적상태, 우울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세부평가를 통해 방문관리는 1)보편방문(일반가정)과 2)지속방문(고위험가정)으로 분류됨. 1) 보편방문서비스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하며 (필요시 추가1회) 산모 및 신생아 건강사정, 산전·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2) 지속방문서비스는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이 만 2세까지 총 25회 방문하며, 기존의 보편방문서비스에 더하여 가족파트너십 기반 영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성장발달 지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공동방문, 지역자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 다만, 교육대상 전문인력 (영유아건강간호사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인원’ 변동이 심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관리사업」의 연도별 실적은 코로나19 발병(20.1월) 이전 '19년까지는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업 전문인력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실적이 저조해졌으며, 특히 ‘영유아건강간호사’의 실제 방문실적 및 보편방문 도달을 부진의 경우, 과거 서울시의회⁹⁾에 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 예산 및 일 평균방문건수〉

분류	인력수	실인원 (휴직자 등 제외)	22년 인건비 전체 예산 (천원)	22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보조금 (천원)	1인당 일평균 보편방문	1인당 일평균 지속방문	1인당 일평균 전체방문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	76명	69명	4,751,831	5,210	0.46건	0.61건	1.07건
공무원 영유아 간호사	25명	19명	495,000	1,650	0.13건	0.03건	0.17건
전체	101명	88명	5,246,831	4,329	0.39건	0.48건	0.87건

- 그럼에도, 2022년 서울시의 심각한 출산율(0.59) 및 꾸준한 35세 이상의 부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의 사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9) 2022. 11. 28. (월)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中 운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질의 및 보도자료 “월급 500만원인데 방문 실적은 0.6건 운영희 시의원 ‘찾동’ 간호사 강력 비판”

- 또한, 동 「사업지원단」 사무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인 “영유아 건강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¹⁰⁾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 공모하여, 향후 「사업지원단」의 목표설정 및 달성률 문제와 「방문관리사업」의 1인당 일평균 방문실적 및 보편방문 도달율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86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나.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다. '23.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10년 초과)됨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업무의 지속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 사무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
- 나. 위탁 유형: 사무 위탁
- 다. 위탁 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및 사업효과 평가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치이며,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부·모의 비중 또한 매 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는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아동기 개입을 지원하는 보편방문서비스 및 고위험 가정 대상 지속방문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었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산전-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형 모델로 개발한 후 국내화에 성공한 사례로, 2013년 3개구(강북, 강동, 동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전체로 확대함.
- 이는 임신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사업지원단’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매뉴얼 개발 및 25개 자치구 방문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360시간(인력 1명당)의 교육을 통한 방문 역량 강화임.
- 사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과학적 근거 축적·확보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업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사업의 발판 마련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바.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사. 소요예산: 250,000천원('24년)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991,2023.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종합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5억원 미만)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은혜 (☎ 2133-9687)